

# 국산품종 17종 육성... 복숭아 '세대교체' 나선다

농진청, 국산품종 보급률 34%  
천도 '천홍'·복숭아 '유명' 등  
2026년까지 보급률 40% 목표

최근 국산 품종 '복숭아'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을 지금의 34%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보급한 결과,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34%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올해까지 털 없는 천도 7품종, 털 있는 복숭아 10품종 총 17품종을 육성했다.

농진청은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 시장



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학기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이 새로 품종 개발한 복숭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절반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위에 약해 쉽게 죽는 단점

이 있었다"며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왔다"고 설명

했다.

털 없는 천도 중 대표 품종은 국내 최초 천도 품종 '천홍'이다. 최근 개발된 천도 품종으로는 '엘로드림' '스위트퀵' '이노센스' '설홍' 등이다. 이들 품종은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달콤한 복숭아로 대부분 당도가 14브릭스다.

농진청은 "털 없는 천도 가운데 대표 품종은 국내 최초 천도 품종인 천홍"이라며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과 하순께 수확하고, 색이 붉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워 국내 천도 가운데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고 소개했다.

털 있는 복숭아 품종은 대한민국 1호 복숭아 품종인 '유명'이 대표적이다. 단단한 품종의 대명사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다.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좋아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품종으로 '미홍' '유미' '수미' 등이 있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소비자들과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숭아 품종 개발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 연구는 물론,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달콤함은 살리고 껍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 품종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신학기 농진청 원예작물부장은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겠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달콤함은 살리고, 껍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 품종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대학생들에 BIM기업 설명·취업지원 서비스

9~10일 Cost-BIM 취업아카데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폴리텍대학, 단국대학교는 오는 9~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Cost-BIM 취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Cost-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입체적 표현방식으로 디자인하고 부재별도 정보를 입력해 설계·건축·시공단계에서 활용하는 3D 모델링 기반의 LH BIM 물량산출 기법이다.

건설 환경은 2D 기반에서 3D BIM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LH는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

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취업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LH는 이틀간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Cost-BIM 소프트웨어 소개 및 실습, BIM업체 기업설명회, 일대일 취업상담 및 현장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학생이 졸업 후 경력 단절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Cost-BIM 확대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줄이고 대학생이 일하면서 배우는 취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도로공사, 시설관리근로자 234명 정규직 전환

자회사 '시설관리(주)' 설립·출범  
계약기간 남은 53명은 내년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를 설립하고, 김천 본사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은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53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된다.

도로공사는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전담부서를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도로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 설립 기념 현판 제막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주축으로, 임금체계 등 자회사 설립 관련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용역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회사로 통합됨으로

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타 부문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美 LA서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관광공사, 미국인 관광객 유치 일환

정부가 미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최대 방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서부 유력 미디어와 관광 유관기관 등 오피니언 리더, 여행업계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국을 '맛있는 음식'에 대해 관광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음식 만족도는 95.3%로 방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을 찾은 미국 관광객은 북미갈등으로 인해 87만명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47만명이 방한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LA 시내 알렉산드리아 행사장에서 현지 관광미디어, 여행업계, 마이스(MICE) 기획자 등 60여명을 초청해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행사로 미쉐린 가이드 북 선정 2스타 한식당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등 구미주 여행업계 초청 한국관광 트래블마트에서 바이어들이 상담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권속수'의 권우중 셰프를 초청해 '30년 된 씨간장을 뿌린 국산 캐비어 전복찜'과 '400년 전통비법을 담은 무만두' 등 고급 한식요리를 시연하고, 미식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홍보한다.

이어 11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트와이스 등 한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한류 페스티벌인 'KCON LA 2018' 개막에 앞서, 사전 행사로 국가원의 태권도 시범 행사를 선보인다. 또한 공사 지원으로 제작된 미국 CBS 프로그램 '로 트래블(Raw Travel) 한국편' 제작 프로듀서를 연사로 초청해 DMZ투어, 경복궁 한복체험, 홍대 버스킹 공연 등 한국여행체험단을 소개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총 8명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일당의 70%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와 B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애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aT,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5기 발대

브라질·폴란드 등 9개국 파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아프로)'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3기, 4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파견되는 5기는 브라질, 폴란드, 대만, 말레이시아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9개국으로 파견되어 해외 시장개척을 선도하고자 선정된 '2018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업체'의 현지 주재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1~4기 단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열정' 사진으로 수출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아프로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우수 단원 김영근씨(3기, 남아공 파견)와 박건호씨(3기, 대만 파견)의 멘토링을 통해 파견을 앞둔 신규 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멘토로 참여한 김영근 단원은 "처음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설레임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파견된 단원들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팀워크를 통해 극복했다"며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이병호 aT 사장이(오른쪽) 6일 열린 아프로 5기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T

있었고, 저 또한 매칭된 업체에 취업되어 다시 남아공으로 떠나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열정적인 팀워크를 만들라고 후배들에게 선배다운 조언을 남겼다.

한편, 발대식 이후 파견을 앞둔 35명의 신규 단원들은 일주일간 aT 유통교육원에서 기본적인 수출역량 교육을 받게 된다. aT 유통교육원에서 개발한 본 교육과정은 농식품 수출현황과 정책, 수출절차와 무역 실무 및 글로벌 마케팅 등의 기본 교육을 통해 농식품 무역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다지며, 파견국에 대한 이해, 글로벌 에티켓이나 안전 등을 교육받아 원활한 현지 적응을 돕도록 구성돼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